

[2026] 한주간 쉽게 보는  
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

Jeju News Keyword Trends

---

No. 76

---



# Contents

---

※ 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※ 대상 기간 : 2026.01.22~2026.01.28

##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- 정치·행정 ..... 1
- 경제·관광 ..... 2
- 지역·사회 ..... 2

##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..... 3
-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6
-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9

## ①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-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 
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에너지, 평화, 건설, 오영훈, 도로
경제·관광	상승, 숙박, 소비, 만감류, 건설
지역·사회	인정, 학생, 교사, 대응, 지역사회

※ 분석 기간 : 26.01.22.~26.01.28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- (정치·행정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정치·행정	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LNG 복합발전소 건설 찬반 논쟁</li><li>- 전국 최초 RE100 감귤 생산 성공</li><li>- 분산에너지 확산과 도민 이익 공유</li></ul>
	평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세계평화의 섬 지정 21주년 비전</li><li>- 4·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</li><li>- 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와 평화 기여</li></ul>
	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</li><li>-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</li><li>-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추진</li></ul>
	오영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일본 규슈 방문 및 지방외교 확대</li><li>- 행정시 연두 방문 및 도민 대화</li><li>- 에너지 대전환과 건설 경기 부양 리더십</li></ul>
	도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5·16도로 명칭 변경 공론화</li><li>- 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 개선</li><li>-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갈등 조정</li></ul>

## ○ (경제·관광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경제·관광	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및 경기 회복 기대감</li> <li>- 설 명절 앞둔 가계 물가 전망 및 장바구니 부담 증가</li> <li>- 제주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 경신</li> </ul>
	숙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엔데믹 이후 제주 숙박업 매출 부진 및 경영난 심화</li> <li>- 숙박 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당 경쟁 및 폐업 증가</li> <li>- 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가성비 숙소 선호 현상</li> </ul>
	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역화폐 '탐나는전' 적립률 20% 상향 및 민생 경제 활성화</li> <li>- 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식비 부담 및 점심값 고민</li> <li>- 설 맞이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및 특별 보증 실시</li> </ul>
	만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수입 만다린 공세 대응을 위한 만감류 소비 촉진 캠페인</li> <li>- 설 명절 대비 저급 만감류 유통 및 미숙과 조기 출하 차단</li> <li>- 만감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금 투입 및 수급 조절</li> </ul>
	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 건설 산업의 극심한 침체 및업체 줄도산 위기</li> <li>- 1조 원 규모 대형 공공 에너지 사업의 적기 착공 촉구</li> <li>-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4대 축 중심 활성화 종합 대책</li> </ul>

## ○ (지역·사회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지역·사회	인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악성 민원 시달리던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</li> <li>- 제주4·3 행방불명 희생자 7구 신원 추가 확인</li> <li>- 서귀포in정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</li> </ul>
	학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령인구 감소 속 읍면지역 학생 수 증가 성과</li> <li>- 제5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분석</li> <li>- 돌봄·교육 어린이 대상 제철과일 간식 지원</li> </ul>
	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2026학년도 유·초·특수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 발표</li> <li>- 3월 정기인사 예고 및 교육공무원 배치 기준</li> <li>- 교권 침해 방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촉구</li> </ul>
	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겨울철 폭설·강풍에 따른 비상 대응 태세 강화</li> <li>- 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대응 체계</li> <li>- 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 및 농작물 피해 대응</li> </ul>
	지역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 둘러싼 갈등과 공론화</li> <li>- 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</li> <li>- 설 명절 앞둔 지역사회 취약계층 나눔 활동 확산</li> </ul>

## ②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2026년 1월 22일~1월 28일 기간, 정치·행정, 경제·관광, 지역·사회 등에 관한 제주지역 7개 주요 언론사 보도자료는 약 785건임
    - 정치·행정 분야 339건, 경제·관광 173건, 지역·사회 273건임
  - \* 대상 언론사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  - 정치·행정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에너지, 평화, 건설, 오영훈, 도로 등으로 나타남



[그림 1] 정치·행정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- #### ○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

정치·행정	에너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LNG 복합발전소 건설 찬반 논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의회에서 신규 300㎿급 LNG 복합발전소 건설 필요성을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어 전력 수급 안정과 탄소중립 정책 간의 충돌 문제가 논의됨.</li> <li>· 찬성 측은 노후 발전기 폐쇄에 따른 전력 공백 방지를 위해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나, 반대 측은 탄소 배출 증가 및 재생에너지 전환 역행을 우려하며 에너지저장장치 확충을 대안으로 제시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전국 최초 RE100 감귤 생산 성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농업기술원이 태양광 발전과 공기열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만을</li> </ul> </li> </ul>

	<b>에너지</b>	<p>활용해 난방과 전력을 100% 충당하는 'RE100 감귤' 생산 및 출하를 선포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화석연료 기반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자립을 동시에 달성했으며, 향후 태양광 연계 표준설계모델 개발 및 농가 보급을 통해 에너지 생산자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임.</li> </ul> <p>- <b>분산에너지 확산과 도민 이익 공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'제주형 분산에너지 확산 도민 토론회'가 열려 재생에너지 사업 초기부터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'도민 참여 2.0 전략'과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 방안이 제시됨.</li> <li>오영훈 지사는 해상풍력 등 대규모 사업에 도민 투자를 유도해 소득을 창출하고, 히트펌프 보급 확대로 주거 비용을 절감하는 등 에너지 전환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약속함.</li> </ul>
<b>정치·행정</b>	<b>평화</b>	<p>- <b>세계평화의 섬 지정 21주년 비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오영훈 지사는 세계평화의 섬 지정 21주년을 맞아 평화의 개념을 외교·안보를 넘어 인권, 환경, 민생 등 도민 삶 전반으로 확장하는 '적극적 평화' 실현 의지를 밝힘.</li> <li>향후 10년을 내다보는 '세계평화의 섬 비전 2035'를 수립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평화 실천 체계를 구축하고, 지방외교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새로운 평화 해법을 제시할 계획임.</li> </ul> <p>- <b>4·3 행방불명 희생자 신원 확인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경산 코발트광산과 대전 골령골 등 도외 학살터에서 발굴된 유해 유전자 감식을 통해 4·3 행방불명 희생자 7명의 신원이 70여 년 만에 확인되는 성과를 거둠.</li> <li>이번 신원 확인은 직계뿐만 아니라 방계 유족들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, 제주도는 단 한 명의 희생자라도 끝까지 찾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임.</li> </ul> <p>- <b>고 이해찬 전 총리 추모와 평화 기여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4·3특별법 제정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, 세계평화의 섬 지정 등에 기여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따라 제주도와 도의회가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고 애도함.</li> <li>고인은 4·3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희생자 심의·결정과 평화공원 조성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, 제주도는 그의 평화 통일과 제주 발전에 대한 헌신과 업적을 기림.</li> </ul>
	<b>건설</b>	<p>- <b>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 발표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도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에너지 전환과 연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民間으로 확대하고 신규 건설 수요를 창출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함.</li> <li>원도심 등에 '리모델링 활성화 구역'을 지정해 건폐율 완화 혜택을 제공하고, 관광진흥기금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친환경 에너지 시설을 도입하는民間 사업자에게 금리 우대를 지원함.</li> </ul> <p>- <b>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관리 강화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공공 및民間 대형 건설공사에서 도내 업체의 하도급 참여 비율을 높이기 위</li> </ul>

	<b>건설</b>	<p>해 참여율 70% 미만인 사업장을 '특별관리현장'으로 지정하여 집중 관리하기로 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월 1회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조례 권고 기준 준수를 독려하고, 지역 업체 일감 확보를 통한 실질적인 낙수 효과와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행정적 개입을 강화함.</li> <li><b>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 추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건설경기 침체 극복과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해 올해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를 60.5%로 설정하고, 도로·항만 등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 투입함.</li> <li>1억 원 이상 주요 투자 사업을 상반기 내 최대한 집행하고, 긴급 입찰 및 행정 절차 단축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며 집행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와 폐널티 제도를 운영할 방침임.</li> </ul> </li> </ul>
<b>정치·행정</b>	<b>오영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일본 규슈 방문 및 지방외교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오영훈 지사는 일본 후쿠오카현과 사가현을 방문해 반도체, 바이오 등 신산업 협력과 제주-후쿠오카 직항 재개에 따른 관광·문화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함.</li> <li>SAGA 아레나와 하카타항 등 주요 인프라를 시찰하며 제주항 개항 100주년 대비 및 제주형 복합문화시설 조성에 대한 벤치마킹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제안함.</li> </ul> </li> <li><b>행정시 연두 방문 및 도민 대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새해를 맞아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방문해 '도민과의 대화'를 개최하고, 현장 도지 사실 운영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 현안의 추진 상황을 직접 보고하고 소통함.</li> <li>청년 일자리 창출, 생활 민원 해결, 미래 산업 육성 등 도민 관심사에 대한 도정 방향을 설명하고, 건의 사항에 대한 책임 있는 해결과 후속 조치를 약속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함.</li> </ul> </li> <li><b>에너지 대전환과 건설 경기 부양 리더십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오 지사는 건설경기 활성화 종합대책과 분산에너지 확산 비전을 직접 발표하며, 에너지 전환을 매개로 한 신규 시장 창출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드라이브를 검.</li> <li>도민이 에너지 생산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고, 그린 리모델링 등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과 민생 경제 활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도정 운영 의지를 피력함.</li> </ul> </li> </ul>
	<b>도로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5·16도로 명칭 변경 공론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군사 정권의 잔재라는 비판과 역사적 상징성 의견이 공존하는 '5·16도로'의 명칭 변경을 위해 도민 공감 토론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함.</li> <li>도로명주소 사용자 대상 설명회와 여론 수렴을 거쳐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, 과거 무산된 사례를 딛고 민주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명칭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질지 주목됨.</li> </ul> </li> <li><b>교통사고 잦은 곳 구조 개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도는 교통사고가 빈번한 읍·면 지역 도로 5개소를 선정해 국비 13억 원을 투입, 무인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 등 안전 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함.</li> </ul> </li> </ul>

정치·행정	도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과거 개선 사업지 분석 결과 사고 건수와 인명 피해가 60% 이상 감소한 효과를 바탕으로, 위험 지점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구조 개선을 통해 도민 안전을 확보할 계획임.</li> <li>- <b>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갈등 조정</b></li> <li>· 장기간 지속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협약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론화 추진단을 위촉하고 숙의형 공론화 과정을 시작함.</li> <li>·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의제 숙의 워크숍, 시민 원탁회의 등을 통해 도로 개설 필요성과 녹지 보전 가치 사이의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고 갈등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임.</li> </ul>
-------	----	--

- 경제·관광 보도자료의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상승, 숙박, 소비, 만감류, 건설 등으로 나타남



## [그림 2] 경제·관광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## ○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경제·관광	상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 지역 소비자심리지수 반등 및 경기 회복 기대감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한국은행 제주본부 조사 결과, 1월 제주 소비자심리지수(CCSI)가 107.1로 전월 대비 3.6p 상승이며 한 달 만에 반등에 성공함.</li> <li>·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소득 증가와 관광객 증가세가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 응답으로 이어졌으며, 가계수입 및 향후 경기 전망 지수가 큰 폭으로 오름.</li> </ul> </li> <li>- 설 명절 앞둔 가계 물가 전망 및 장바구니 부담 증가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1월 물가수준전망CSI가 141로 전월 대비 1p 상승하며, 소비자들이 향후 물가가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장바구니 물가 부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됨.</li> </ul> </li> </ul>

	<b>상승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사과 등 성수품 가격 상승으로 도민들의 체감 물가가 높은 상황이며, 이에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및 역대 최대 규모인 910억 원의 할인 지원 대책을 발표함.</li> <li>- <b>제주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역대 최고치 경신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제주 지역 예금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이 1.32%를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, 부채의 질적 건전성이 악화됨.</li> <li>·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금리 상승, 경기 불황이 맞물리며 연체율이 치솟았으며, 특히 취약계층의 부채 비중 확대와 자산가치 하락이라는 삼중고로 인해 전국 최고 수준의 연체율을 보임.</li> </ul> </li> </ul>
경제·관광	<b>숙박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엔데믹 이후 제주 숙박업 매출 부진 및 경영난 심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체류 기간 단축(4.6일→3.7일)으로 인해 제주 숙박업체당 평균 매출액이 2019년 2.7억 원에서 2023년 2.2억 원으로 급감함.</li> <li>· 타 지역의 매출 상승세와 대조적으로 제주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, 특히 매출 5,000만 원 미만의 영세업체 비중이 69.3%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냄.</li> </ul> </li> <li>- <b>숙박 시설 과잉 공급에 따른 과당 경쟁 및 폐업 증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2023년 이후 객실 초과 공급이 심화되어 지난해 기준 유류 객실이 4.7만실에 달하는 등 과잉 공급 문제가 숙박업계의 수익성 악화와 직결됨.</li> <li>· 경쟁력 없는 노후 업체와 농어촌민박이 밀집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폐업률(8.2%)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, 공급 측면에서의 신규 진입 방지 및 업종 전환 유도 대책이 시구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소비 트렌드 변화에 따른 가성비 숙소 선호 현상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고가의 '호캉스'나 풀빌라 대신 '가성비 숙소'를 찾는 트렌드가 강화되면서 관광객의 1인당 숙박비 지출액이 전년 대비 18.6% 감소하는 등 수익 구조가 변화함.</li> <li>· 단기 여행 위주로 패턴이 바뀌며 공항 인접 숙소 선호도가 높아진 반면, 외곽 지역 숙박 관련 신용카드 사용액은 29.6% 감소하는 등 지역별 편차가 뚜렷하게 발생함.</li> </ul> </li> </ul>
	<b>소비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지역화폐 '탐나는전' 적립률 20% 상향 및 민생 경제 활성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특별자치도는 설 연휴를 맞아 2월 한 달간 '탐나는전' 포인트 적립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20%로 대폭 상향하여 도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도모함.</li> <li>· 이용자들은 월 최대 14만 원의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, 과거 적립률 상향 시 사용액이 117% 급증했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외식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식비 부담 및 점심값 고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냉면(8.3%), 비빔밥(7.5%) 등 주요 외식 메뉴 가격이 1년 새 크게 오르며 '런치플레이션' 현상이 심화되어 직장인들이 편의점 식사나 도시락으로 대체하는 사례가 늘어남.</li> <li>· 칼국수 가격도 5% 인상되어 평균 1만 원 시대에 진입했으며, 식재료비와 인</li> </ul> </li> </ul>

	소비	<p>건비, 임대료 등 운영 비용 상승이 외식 가격을 계속해서 밀어올리는 주된 원인으로 꼽힘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설 맞이 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및 특별 보증 실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와 제주은행 등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0억 원 규모의 '희망 원스톱 특별보증' 협약을 체결하고 업체당 최대 1,000만 원까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함.</li> <li>· 보증 수수료 인하와 우대 금리 적용은 물론, 비대면 자동 심사 방식을 도입해 재단 방문 없이 스마트폰으로 신속하게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임.</li> </ul> </li> </ul>
경제·관광	만감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수입 만다린 공세 대응을 위한 만감류 소비 촉진 캠페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미국산 만다린 무관세 수입에 따른 물량 공세에 맞서 제주 농협은 레드향과 한라봉을 최대 40% 할인 판매하는 등 온·오프라인 전 채널을 활용한 판촉전에 돌입함.</li> <li>· 전국 하나로마트 할인행사와 주요 TV 홈쇼핑 집중 편성, 대형 유통업체 기획전을 통해 제주 만감류의 우수한 품질을 홍보하고 수입산과의 차별화를 강조하여 시장 점유율을 수호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설 명절 대비 저급 만감류 유통 및 미숙과 조기 출하 차단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저급 만감류의 유통을 막기 위해 2월 13일까지 도내외 선과장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민·관 합동 특별 단속 및 유통 지도를 강화함.</li> <li>· 당도 11.5브릭스 이상 등 상품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, 위반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지원 제한 등 강력 조치를 취해 고품질 만감류의 브랜드 가치를 보호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만감류 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 자금 투입 및 수급 조절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만감류 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10억 원의 마케팅 및 소비 쿠폰 지원, 1만 톤 규모의 매취 사업 추진 등 행정과 농협이 협력하여 다각적인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함.</li> <li>· 지자체 간 농특산물 상호 교류와 온라인 쇼핑몰 할인 기획전을 통해 판로를 확대하고, 농가들이 완숙과 위주로 선별 수확하도록 지도를 강화하여 가격 지지 및 농가 소득 안정을 꾀함.</li> </ul> </li> </ul>
	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제주 건설 산업의 극심한 침체 및 업체 줄도산 위기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 지역 건설업이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지난해에만 90개 업체가 폐업하고, 취업자 수는 3년 새 36%(1.3만 명)나 급감하는 등 산업 전반이 구조적 붕괴 위기에 직면함.</li> <li>· 민간 건설 시장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건설 단체들은 지역 건설업계의 유일한 활로인 공공 부문 공사의 조기 발주와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정부와 도정에 촉구함.</li> </ul> </li> <li>- <b>1조 원 규모 대형 공공 에너지 사업의 적기 착공 촉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건설단체연합회는 침체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삼양 및 동복리 LNG 복합발전소 건설 등 약 1조 원 규모의 국가 공기업 사업을 예정된 일정대로 신속히 착공할 것을 요구함.</li> </ul> </li> </ul>

경제·관광	건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마중물 역할을 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와 자재 조달이 이루어질 경우, 사면초가에 빠진 지역 건설 산업의 재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함.</li> <li>- <b>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4대 축 중심 활성화 종합 대책</b></li> <li>- 제주도는 전략적 공공 투자와 하도급 관리 강화 등 4개 분야를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으며, 상반기 내 재정 집행률 60.5%를 목표로 SOC 사업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기로 함.</li> <li>-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'그린 리모델링' 건설 수요 창출, 관광진흥기금 등 정책 기금을 활용한 금융 지원 모델 마련, 도내 업체 하도급 비율 70% 미달 사업장 특별 관리 등을 추진함.</li> </ul>
-------	----	--

- 지역·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인정, 학생, 교사, 대웅, 지역사회 등으로 나타남



### [그림 3] 지역·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#### ○ 지역 · 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지역·사회	인정	- 악성 민원 시달리던 현승준 교사 순직 인정 · 사학연금공단은 지난해 5월 학생 가족의 반복된 민원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숨진 제주시 모 중학교 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을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인정함. · 심리부검 및 진상조사 결과 고인이 처했던 심리적 부담과 초과근무 상황이 공

	<b>인정</b>	<p>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명예가 회복되었으며, 유가족을 위한 자녀 장학금 등 지원이 추진될 예정임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제주4·3 행방불명 희생자 7구 신원 추가 확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와 제주4·3평화재단은 대전 골령골, 경산 코발트광산, 제주공항 등에서 발굴된 유해 중 7구가 70여 년 전 행방불명된 희생자임을 유전자 감식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 발표함.</li> <li>· 이번 신원 확인은 직계뿐 아니라 8촌까지 아우르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채혈 참여가 결정적이었으며, 이를 통해 발굴 유해 중 총 154명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음.</li> </ul> </li> <li>- <b>서귀포in정 등 지역 우수 농특산물 품질 인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서귀포시는 설 명절을 맞아 자매도시 철원군과 농특산물 상호 교류를 추진하며, '서귀포in정' 시스템을 통해 품질이 인증된 당도 높은 한라봉, 천혜향 등을 대표 품목으로 선정함.</li> <li>· 지난 30년간 이어온 이 교류 사업은 지자체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산물의 거래를 통해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소비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는 역할을 함.</li> </ul> </li> </ul>
<b>지역·사회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학령인구 감소 속 읍면지역 학생 수 증가 성과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교육청의 2026학년도 학급 편성 결과, 전체 학생 수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제주북초(IB), 제주남초(글로벌역량) 등 특화 프로그램을 도입한 31개 학교는 학생 수가 증가함.</li> <li>· 특히 학생 수가 증가한 학교의 74%가 읍면지역에 집중되어 있어, 농어촌 유학 및 제주형 자율학교 정책이 소규모 학교 살리기와 지역 학교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됨.</li> </ul> </li> <li>- <b>제5차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분석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교육청 조사 결과,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생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이 낮아졌으며, 학생들은 자신의 타인 인권 존중도가 높다고 생각하나 교직원 체감도는 낮아 인식 차를 보임.</li> <li>·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 참여권 보장과 질 높은 학습권 강화가 과제로 도출되었으며,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 학생 인권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맞춤형 인권교육을 시행할 방침임.</li> </ul> </li> </ul>
<b>학생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돌봄·교육 어린이 대상 제철과일 간식 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특별자치도는 초등학생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해 올해 4억 4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, 초등 돌봄교실 등을 이용하는 1~2학년 학생 7300여 명에게 제철 컵과일을 연 30회 제공함.</li> <li>· 이 사업은 제주산 감귤류와 키위 등 국산 과일 10종 이상을 공급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, 지역 과수 농가에는 안정적인 소비처를 제공하는 상생 모델로 운영됨.</li> </ul> </li> </ul>
<b>교사</b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2026학년도 유·초·특수학교 교사 임용 합격자 발표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공립 유치원, 초등학교,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76명을 발표하였으며, 분야별로 초등교사 55명, 특수학교 교사 16명 등이 선발됨.</li> </ul> </li> </ul>

	교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합격자들은 2월 중 탐라교육원이 주관하는 신규임용교사 직무연수를 거쳐 학교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며, 합격자 등록 절차는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도교육청 별관에서 진행될 예정임.</li> <li><b>3월 정기인사 예고 및 교육공무원 배치 기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도교육청은 오는 3월 1일 자 교사 정기인사를 예고하며 수석교사, 초빙교사 등 총 969명 규모의 배치를 발표하고 학교별 특색 교육과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전보 조정을 실시함.</li> <li>이번 인사는 단위학교 책임경영 지원과 전문성을 고려한 배치에 중점을 두었으며, 읍면지역 학교 활성화를 위해 국제바칼로레아(IB) 학교 등 유입이 늘어난 곳의 교원 수급을 안정화함.</li> </ul> </li> <li><b>교권 침해 방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 촉구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故 현승준 교사의 순직 인정 이후 제주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에 대한 공적 대응 체계 구축과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함.</li> <li>도교육청은 학교 상담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고 학교안전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무 대응력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 중임.</li> </ul> </li> </ul>
지역·사회	대응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겨울철 폭설·강풍에 따른 비상 대응 태세 강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 지역에 사흘째 이어진 한파와 대설주의보로 산간도로가 통제되고 교통사고가 잇따르자, 제주도는 비상 대응 회의를 열고 제설 설비 가동 및 취약계층 보호 등 행정력을 집중함.</li> <li>기상청은 중산간 이상 지역의 빙판길 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, 소방당국은 강풍에 의한 시설물 파손과 눈길 고립 사고에 대비하여 즉각적인 구조 및 안전조치 체계를 가동함.</li> </ul> </li> <li><b>응급환자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 대응 체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 신고부터 병원 이송까지 전 과정을 연결한 '골든라인'을 통해 심정지 환자 회복률에서 4년 연속 도 단위 전국 1위를 기록하며 고도화된 응급 대응 성과를 보임.</li> <li>영상통화 심폐소생술 안내와 전국 최초의 소방·자치경찰·교통방송 협력 '신속 이송 트라이앵글' 가동으로 평균 병원 도착 시간을 단축했으며, 도민 참여 교육을 통해 대응력을 강화함.</li> </ul> </li> <li><b>기후변화에 따른 어장 변화 및 농작물 피해 대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후변화로 표층 수온이 상승하며 제주 주력 어종인 방어와 옥돔의 위판량이 감소하자, 도는 새로운 주력 어종 확보 등 어종지도 변화에 맞춘 수산 분야 대응 전략 마련에 착수함.</li> <li>또한 지속된 가뭄으로 월동채소 생육 부진과 상품성 급락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협과 지자체는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수급 조절과 농촌 용수 확보 등 농업 분야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함.</li> </ul> </li> </ul>
	지역사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서귀포 도시우회도로 개설 둘러싼 갈등과 공론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서귀포시 동홍동 주민들이 수십 년 된 숙원 사업인 도시우회도로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연 가운데, 시민단체는 환경 훼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</li> </ul> </li> </ul>

지역·사회	지역사회	<p>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는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도민 1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등 ‘숙의형 공론화’ 절차를 2월부터 추진하여 환경 보전과 도로 개설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임.</li> <li>- <b>지역 필수 의료 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민관 협력</b></li> <li>· 제주대학교병원과 보건복지부, 제주도는 간담회를 열고 ‘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’ 시범사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진 처우 개선과 필수 진료과 확대 등 지역 맞춤형 모델 구축을 논의함.</li> <li>· 이는 지역 내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도민들에게 양질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, 지자체와 거점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.</li> <li>- <b>설 명절 앞둔 지역사회 취약계층 나눔 활동 확산</b></li> <li>· 설 명절을 앞두고 아라동연합청년회의 사랑의 쌀 기탁, 봉개동주민센터의 이웃 사랑 성금 전달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단체들이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과 복지를 위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음.</li> <li>· 서귀포시는 소외된 이웃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농식품 바우처 사업을 연중 추진하며, 특히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함.</li> </ul>
-------	------	---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전략실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